



[뉴스]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정 공방
02



코스피
3127.20
(-20.66)

코스닥
961.81
(-21.64)

금리
(국고채 3년)
1.149
(+0.008)

환율
(원/달러)
1124.00
(+11.70)(3일)

'불안한 1위' 삼성 폰 혁신·가성비 총공세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3억5400만대로 점유율 1위 탈환
매출액은 애플의 절반도 못 미쳐
하반기 새 혁신기술 등 공략 강화



갤럭시Z폴드2 사용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지만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 등 새로운 혁신 제품과 가성비 높은 신제품으로 리더십을 이어갈 전망이다.

3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5400만대였다.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21.7%로 1위를 탈환했다. 지난 4분기 16%로 밀렸지만, 다시 점유율을 높이면서 애플(16.8%)과 자리를 뒤바꿨다.

비결은 갤럭시S21 시리즈다. 예년보다 2달여 조기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에 더해 A시리즈도 추가 출시하며 샤오미가 자리를 비운 중저가폰 시장도 공략해냈다.

그러나 실속은 없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1130억달러. 이중 삼성전자 점유율은 17.5%에 불과했다. 애플(42%)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저가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량 기준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에 25%에서 올해에는 34.4%로 대폭 늘었다. 화웨이 빙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한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文, 신임 檢총장 후보에 김오수 지명



처리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지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가운데 검찰총장 인사 제청 이후 이뤄진 인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조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1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400명대…
총 488명
▲ 노령화 국토부장관 아들 실업급여 면
특… 정부 지원금도 꿀꺽! /사진 뉴시스

▲ 김종인 "한일 문제 해결, 차기 정부서 하는 수밖에"

▲ 바이든 100일간 '풀뿌리 정치자금' 트럼프·오바마 제쳤다

"우리 안에 1등 DNA… 국내 넘어 세계로"

'구본준호' LX홀딩스 공식 출범
LG상사 등 5개사 매출 16조 수준

"우리안에 '1등 DNA'가 있습니다. 국내 텔리스(반도체 설계회사)와 인테리어 자재, MMA(메탈메타크릴레이트), 포워딩(회물운송주선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로 나아갑니다."

LG그룹 계열사로부터 분리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LX홀딩스의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구본준 회장(사진)이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1985년 금성반도체에 입사한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LG반도체, LG필립스, LCD(현 LG디스플레이), LG상사, LG전자 등에서 대표를 맡은 후 LG



그룹 부회장과 고문을 역임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구인회 LG그룹 창업자가 할아버지, 구자경 LG그룹 명예 회장이 아버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큰 형이다.

구본준 회장은 큰 형인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4년만에 경영에 복귀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닦을 올린 LX그룹엔 LG그룹 계열사였던 LG상사(인프라), LG하우시스(건축자재), 실리콘워스(시스템 반도체설계), LG MMA(기초소재), 판토스(물류)가 두루 포함됐다. 신설 지주가 4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LG

상사 산하의 판토스는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LX홀딩스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조248억원이다. 영업이익은 4025억원 수준이다. LX홀딩스를 포함한 자산총액(공정자산)은 8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계 50위권 내로 관측된다.

이들 사명도 LG를 떼어내고 LX로 바뀔 예정이다. LG그룹은 지난 3월 26일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를 설립하는 지주회사 분할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신설 지주 사명을 두고 잠깐 갈등도 있었지만 두 기관이 'LX' 사명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도 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o@

000000										
시장	종목명	종목 코드	책임자	제작내역(제작내역)						
				제작일자	제작금	제작 방법	제작 방법	제작 방법	제작 방법	제작 방법
1 유가증권 (유)제일약품	271980	2020-03-13	4,885	100	1	10	10	10	10	10
2 유가증권 (유)금호타이어	073240	2020-03-13	14,837,366	44	100	100	100	100	100	100
3 유가증권 (유)코스맥스비티아이	044320	2020-03-13	4,712,1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유가증권 (유)삼성생명	032350	2020-03-13	1,012,221,35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유가증권 (유)동원시스템즈	012650	2020-03-13	8,525,3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유가증권 (유)HDC	011780	2020-03-13	54,892,93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유가증권 (유)금호석유	010360	2020-03-13	4,255,8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유가증권 (유)OCI	009340	2020-03-13	5,421,728,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 유가증권 (유)한샘	009150	2020-03-13	31,155,35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유가증권 (유)사성전기	004480	2020-03-13	1,259,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매도 부분 재개 시작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

배달앱에 꽂힌 이커머스, 차별화가 관건

코로나19 여파 배달앱 전성시대
쿠팡·위메프 이어 티몬도 도전장

쿠팡과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배달앱 시장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3사가 또 다시 맞붙게 됐다.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만큼 어떠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지 티몬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가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 특수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기존 배달앱 외에 쿠팡과 위메

프가 각각 운영하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2019년 5월 출범한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집만 배달하는 일명 '단건 배달'로 타 업체들과 차별화했으며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시장조사업체 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월 2%였던 서울·수도권 쿠팡이츠 배달앱 순방문자가 2021년 2월 20%를 기록했다.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월 59%에서 2021년 2월 53%로 6%포인트 하락했다. 요기요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9%에서 27%로 12%포인트나 하락했다.

위메프가 운영하는 위메프오도 연내

단건 배달을 시작한다. 위메프오는 '착한 수수료', '마케팅 지원' 등 외식업체 사장님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입점 사장님들이 추가 비용 없이 점포별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골 관리 기능' 도입에 이어 외식업체 사장님들의 배달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단건 배달 서비스 추진에 나선 것이다.

위메프오는 출시 2년만에 월별 거래액(4월 기준)이 16.5배 신장했다. 누적 입점 업체 수는 오픈 첫 달(2019년 5월) 대비 32.4배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입점 업체 수는 6만개에 달한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송영길 취임 일성 "백신 확보 뒷받침 해 11월 집단면역"

▲ 김기현 "법사위원장 돌려주는 건 의무… 당 관심은 '민생 투쟁'" /사진 뉴시스